

애독자  
데이트

고객만족센터 080-031-6911



True Life  
by 서부사료

# 피드저널의 홍보가 더욱 활발해 지길 바랍니다~

>>> [ 취재 \_ 현시영 ]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홍보팀 남민정 대리, 신윤희 사원

## ‘독자들을 찾아 나서자’

사료종합전문지 월간 『피드저널』은 ‘애독자 데이트’를 통해 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축산·사료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보다 알찬 잡지로 도약코자 한다. 각계각층의 폭 넓은 독자들을 만나 잡지와와의 첫 만남부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요즘 관심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 ‘사료공장 맞아?’

윤이나게 닭아놓은 맑은 유리창 같은 투명한 느낌. 피드저널에서 업계단신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의 정문을 들어서서 순간의 첫인상은 만점을 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자를 놀라게 했다.

궁금했다. 도대체 이 회사의 어떤 힘이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걸까?

그리고 드디어 보고싶던 얼굴,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홍보팀의 남민정 대리와 신윤희 사원을 만났다.

“저희 책상한번 보시면 놀라실거예요. 며칠 동안 피드저널 공부했거든요.”

남민정 대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피드저널 공부를 단단히 했다는 말에 기자는 떨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홍보팀 남민정 대리, 신윤희 사원

렸다. 피드저널이 독자들의 눈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듣는 첫 자리였기 때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남민정 대리의 다이어리 사이로 이미 피드저널을 속속들이 파악해 적어놓은 글들이 빼곡하다.

회사홍보도 아닌, 단지 독자들의 취재인데도 바쁜 시간을 쪼개 피드저널을 정독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줘 너무나 감사했다.

남민정 대리가 적어놓은 종이엔 첫 줄부터 피드저널의 칭찬일색.

‘호되게 야단맞고 더 열심히 만 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기자의 머릿속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남민정 대리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피드저널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트루라이프의 제품을 소개하는 남민정 대리

“또, 농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료업계 쪽에서는 피드저널의 이미지가 참 신선하고 좋아요. 저는 특히 비즈니스 엿보기 코너를 자세히 보게되요. 아무래도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업계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데 타 회사의 정보를 간접적으로라도 접할 수 있는 점이 유익하죠. 농장탐방의 경우,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겸손에 남민정 대리는 앞으로는 기업이 어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을 조금 더 깊이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2005년도에 처음 받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정독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드저널은 다른 잡지보다 먼저 손이가요. 확실히 다른 월간지에 비해서 표지에서 차별화가 되니까요. 아이리버가 MP3중에서 디자인 혁명으로 큰 성과를 거뒀잖아요. 축산지에 있어서 피드저널은 아이리버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표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존의 축산 잡지의 개념을 탈피했다고 생각해요.”

기획특집의 주제에 맞게 적절한 일러스트로 표지내용 기획한 보람이 있었다.

장점이 너무 많아서 단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민정 대리와 신윤희 사원.

“저희 트루라이프는 서로 칭찬하고 복돋아 주는 분위기에요. 회사 분위기를 따라가다보니, 성격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할수 없이 다른 월간지에 비해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자 “사실 광고넘기다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피드저널 같은 경우, 지금의 광고가 오히려 더 돋보이고 광고효과도 더 클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단번에 위로(?)를 한다.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주지 않느냐는 질

문에는 “중간에 컬러 면을 넣는게 차별화되고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피드저널에 실리는 업체나 농장의 입장에서 보면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들게 할거라고 생각해요.”

이어지는 칭찬 릴레이.

“피드저널의 매력에 또 뭘줄 아세요? 전문지 같은 경우 딱딱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 썬터를 넣어줘 읽는 재미를 더해요. 생활정보 라던지, 문화컨텐츠가 많아요. 센스있는 잡지라고 생각해요. 또 내용에서도 성의가 느껴지구요. 특히 기획특집같은 경우는 매월 주제선정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참 잘 정하는것 같아요. 필진 선정에 있어 고심의 흔적이 보이고 필진들도 훌륭해요. 중간중간 그림 삽입과 같은 비주얼적인 측면도 신경쓰는게 느껴지고요.”

“또 예전에 연재되었던 해외통신 같은 경우 국외의 시장과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참 좋은 컨텐츠예요. 그런 정보는 계속해서 실렸으면 해요.

지금 연재하고 계시는 황보 종 박사님이나 백인기 교수님의 글도 많은 도움이 되요. 사료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잡지가 아니면 접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효과가 클거라고 생각해요. 피드저널은 볼수록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손때가 많이 묻은 잡지인 것 같아요.

다른 월간지와 또 다른 점은 신제품과 업계소식에 대한 컨텐츠를 구분한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서도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묻어나요. 디자인도 그렇지만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보여 독자입장에서도 만족스러워요.”

기자를 비행기에 태워 전 세계(?)로 안내했던 남민정 대리와 신윤희 사원. 마지막에는 피드저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피드저널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 괜찮은 전문지인데, 홍보만 잘 된다면,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미사료협회 홈페이지에도 피드저널에 창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주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Pygmalion효과를 생각나게 하는 인터뷰였다. 남민정 대리, 신윤희 사원이 불어넣어준 칭찬의 힘은 피드저널에 큰 영양제가 되었다.

2008년에도 이 칭찬의 힘으로 피드저널을 애독하는 독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뿌듯한 다짐을 해본다. ㉞

\* 이 곳은 열린 공간입니다.  
『피드저널』을 구독하는 애독자분들은 데이트를 신청해 주세요.  
02)585-2223(내선 502)  
Kfeedia@hanmail.net

◀ “피드저널 화이팅”을 외쳐준 남민정 대리, 신윤희 사원.

